

왜 인간은 행복이 없는가?

로마서 3:23

정윤돈 목사님

구원받았는데, 홍해를 건넜는데, 우리에게는 광야가 있다. 이곳을 두고 스테판 집사님은 '광야교회'라고 했다. 목상할 것이 너무 많다. 광야는 세상 밖이 아니다. 교회에 올 때부터 광야다. 성막 만들고 율법 지키고 헌당하고 헌금하고 수요예배 나오고 당회 해야 하고 주일학교 해야 하고 수련회 해야 한다. 누리지 않으면 시험거리가 된다. 불신앙하고 불순종하는 게 많지 않다. 하라는 게 너무 많으니까 다 할 수가 없다. 지키라는 게 많으니까 그렇다. 그게 우리의 현실이다. 그러나 그중에서도 우리는 조금씩 훈련되어 간다. 예수님은 그리스도, 구원은 받았다. 그러나 치유받아야 한다. 불신앙, 불순종으로 계속 돌아간다. 그래서 영접한 사람을 10년 동안 다락방에 쥐야 할 수도 있다. 그러면서 조금씩 변해간다. 중직자가 되고 전도자가 되고 산업인이 된다. 그런 40년의 시간이 필요하다. 여유를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길게 보면서 해야 되겠다. 행복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 이것을 전도를 하기 위한 통로로, 중요한 내용으로, 문으로 삼는 것이다.

서론

(1) 그런데 행복이 없다고 느낀다. 이것은 불행감이다. 그런데 대부분 속은 불행감을 가지고 있다. 돈이 없어서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속는 것이다. 사람들은 뭐가 부족하니까 불행하다고 느낀다. 외모가 부족해서 불행하다고 느낀다. 50살 넘으면 다 평균화된다. 80살 되면 다 비슷하다. (웃음) 그런 것을 기준으로 살면 계속 공허에 빠진다. 얼굴을 고치고 또 고치고 그렇게 해서 예뻐지면 만족하는가? 속는 것이다. 내가 이것 때문에 불행하다고 하는데 속는 것이다. 인간적인 갈등, 아무 것도 아니다. 조금만 양보하면 된다. 시간 지나면 다 해결되는 것인데 거기에 목숨을 건다. 그러면 절대 안 되는 것처럼 생각한다. 세상에는 그런 것이 없다. 믿음의 기준으로 바라보는 영적 서밋이 되시기를 바란다. 하나님이 주시는 미래 보는 눈이 있어야 한다. 시간 지나면 말하고 생각하고 판단하는 것이 다 틀리게 된다. 믿음으로 하지 않고, 불신앙으로 하고, 말씀의 기준으로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성적 나쁘다 좋다, 시간 지나 봐야 안다. 어떤 분은 질병 때문에 불행하다고 한다. 어떤 장로님은 2005년에 암에 걸렸는데, 2010년에 재발했다. 그런데 이번엔 완치되었다고 하면서 화요집회 때 강의를 했다. 낙심하지 않고 치료를 받다가 완치를 받았다. 하나님께 다 맡겼구나 싶더라. 얼굴이 더 빛이 나더라. 어떤 병이 있을 때, 그것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도 많다. 내가 어쩔 수 없는 것은 하나님께 맡기면 되는데, 그 질병 때문에 생각이 사로잡혀서 염려하는 것이다. 잘못하면 우리는 속은 불행감을 가지게 된다.

(2)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진짜 불행감을 구분해야 한다는 것이다. 진짜 불행을 느낄 수밖에 없는 상태다.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오직 복음, 오직 그리스도가 필요한 상태다. 복음으로만 치료되는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기위눌리는 문제는 해결이 안 된다. 공허, 허무, 공황 증 같은 것은 두려움에서 오는 것이다. 아무 이유 없이 사람 만나기 싫고 나가기 싫고 갑자기 몰려와서 식은 땀이 나고 사람 만나기 싫고 죽고 싶다. 그런데 아무도 이해를 못 한다. 멀쩡하다가 그렇게 된다. 왜 그런가? 불안한 것이다. 연예인이 되면, 내가 이것을 했을 때 인기가 있을까, 사람들이 좋아해줄까 하는 것을 계속 생각한다. 이것을 계속 생각하다가 공황장애, 불안장애에 시달리게 되는 것이다. 이 감정을 느낄 때는 복음으로만 가능하다. 우울증은 호르몬 체계가 깨진 것이다. 우울감과 우울증은 다르다. 2, 3주 계속 의욕이 없고, 살이 빠지고, 죽고 싶고 그렇다. 우울하면 불행하다. 이것은 다른 세상의 방법으로는 불가능하다. 복음밖에 없다. 그런데, 잘못된 행복감으로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다. 명품 있고 잘 먹고 잘 살면 행복한 줄 착각한다. 이런 사람보다는, 우울하고 힘든 것이 차라리 더 축복이다. 참된 복음을 만나기만 하면 훨씬 더 큰 복인 것이다. 현대 사회는 갈수록 이런 사람이 많아진다. 엘리트일수록 더 그렇다. 이런 공황장애, 불안장애에 시달리는 사람들은 수용할 수 없는 말이 '침착해' 하는 말이다. 이 말을 들으면 화가 난다. 공황발작이라는 것도 있다. 짐을 나섰는데 갑자기 사로잡힌다. 이것은 우리는 우습게 생각하는데 당하는 사람은 엄청나게 심각하다. 현대사회로 올수록 불행을 가져다주는 조건이 점점 많아진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할 대상은 얼마든지 있다. 복음의 내용을 잘 정리해 보라. 본인이 안 그러면, 주변에 그런 사람이 있는지 물어보라. 소개해 달라고 해 보라. 자살하려고 하는 사람은 표현을 자꾸 한다. 나 없어도 잘 살 수 있지 하는 말을 자꾸 하는 것은 자살하겠다는 말이다. 우리가 예방해야 할 부분이 너무 많다. 자살하려는 사람은 불행하다. 길이 없다. 여기에 알려주어야 한다. 근원, 근본을 알려주어야 한다. 영적문제 있는 사람은 예배드려야 산다. 현장에 이런 사람이 깔려 있다. 이것을 알고 현장으로 나가면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붙여주실 것이다. 행복은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다. 문제가 있어도, 아무도 빼앗을 수 없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오는 평강이 내 마음을 주장하는 것이다. 문제가 왔을 때 찾을 수 있는 아버지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가. 그게 없으면 하나님을 안 찾지 않다. 그래서 문제가 와도 축복으로 바꿀 수 있어야 한다.

행복해야 할 인간이 행복하지 못하고, 고통 중에 살아가고 있다. 어떤 이는 가정문제, 건강문제, 경제문제, 정신문제 등으로 고난당하고 있다. 행복이 없어서 다른 행복을 찾아본다. 행복이 없어 술을 마시고, 도박이나 춤에 빠지며, 방종을 해 보기도 한다. 그러나 더 불행해진다. 이유는 무엇인가?

1.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있기 때문이다.

(1) 불순종하여 하나님을 모르게 되었다. 불신앙의 생각 때문에 불순종에 사로잡힌 것이다. (요10:10, 롬3:23) 계속 훈련이 되어서, 문제가 생기면 말씀을 붙잡는,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믿음의 체질, 말씀의 체질로 거듭나기를 바란다.

(2) 그 결과 죄 가운데 빠지게 되었다(롬3:10).

(3) 고통 가운데 빠지게 되었다. 저주에 빠지게 되었다.

- ① 정신적인 고통이 온다(마11:28).
 - ② 보람, 균형 없는 무능한 삶에 빠진다(마12:25).
 - ③ 육신의 병에 시달린다(행8:7~8, 마8:16~17).
 - ④ 이것이 결국 하나님 떠난 영적인 문제인 것이다.
- (4) 해결책을 찾아 미신이나 종교를 찾지만, 문제가 더 커진다는 것을 모르고 있다.

2. 이 불행이 언제부터 시작되었는지 성경은 알고 있다. 이것을 우리만 알고 있는 것이다.

우리가 준비되면, 이것을 알기 원하는 예비된 자를 만나게 될 것이다. 이 불행이 언제부터 시작되었는가?

- (1) 인류 최초 조상인 아담, 하와시대 때부터 시작되었다.
- (2) 원인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죄를 지은 것이다(창3:1~15). 그래서 말씀 속에서 나에게 주시는 레마의 말씀을 찾아내어서 응답을 받아야 한다. 메시지 속에서 한 구절이라도 이것을 찾아내어야 한다.
- (3) 그 결과 고통과 저주 속에 빠질 수밖에 없었다(창3:16~19).

3. 이 불행은 언제까지 계속되는가? 끝을 알아야 한다.

- (1) 아닌 것 같지만,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엡2:1~2).
- (2) 계속 증가되고 있다(마11:28~29). 학교문제, 가정문제, 사회문제는 계속 증가하기만 할 뿐이다.
- (3) 해결하려 할수록 더해진다(마12:43~45). 복음 밖에서 해결하려고 하면 더 큰 문제가 생긴다.

4. 그러면 왜 이런 불행이 없어지지 않는가? 배경을 알아야 한다.

- (1) 창세기 3장 이후로, 불행을 가져다주는 자가 있다. 이것을 가져다주는 영적 존재가 지금도 있다.
- (2) 그 이름에 대하여 연구해 보자. 영적 존재다. 사탄, 마귀, 귀신이라고 한다. 이것은 빨 달린 것이 아니다. 이것은 이간질하는 자, 분열시키는 자다. 교회를, 부부를, 나라를 갈라놓는다. 이것은 복음이 아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허물을 대신 짊어지고, 하나님과 우리를 하나되게 하셨지 않다. 바른 말을 하면서 갈라놓는다면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그러면서 거짓말을 하고 살인을 한다. 대적하는 자라고 했다. 어거스틴은 원죄의 뿌리가 교만이라고 했다. 사단이 타락한 이유는 교만했기 때문이다. 우리는 잘나지도 않았으면서 잘난 척을 한다. 나 중심이 되어서, 나의 공은 크게 하고 남의 공은 줄이며, 나의 허물은 줄이고 남의 허물은 크게 한다. 그렇게 교만하면서, 또 시기하고 질투한다. 이것을 바꿔야 한다. 결국 이게 타락하게 된 것 아닌가.
- (3) 언제부터 나타났는가?
 - ① 잘 알려주어야 한다. 하늘에서 타락한 천사였다(겔28:14~19).
 - ② 공중으로 쫓겨났다(엡2:2).
 - ③ 지구 가운데로 출현하여 인간을 망하게 했다.
 - ④ 결국 지옥으로 가게 된다. 그러나 그때까지 우리를 계속 괴롭히는 것이다(마25:41). 흑암을 쫓아야 한다. 마귀는 복음 증거하

는 사람을 너무나 방해하기 때문이다.

5. 하나님을 모르면 어떻게 되는가? 정확하게 복음을 알면 아무 것도 아닌데, 모르면 이렇게 되는 것이다.

- (1) 영적인 문제가 온다(요8:44).
- (2) 원인을 모르고 고통을 당하게 된다(행10:38, 행8:7~8).
- (3) 행복이 없다(마12:25~28).
- (4) 마음의 안식이 없다(마11:28).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상황, 조건 상관없이 찬송하게 된다. 모든 것을 뛰어넘을 수 있다.
- (5) 육신의 고난이 계속된다(행8:4~8).
- (6) 정신이 고난당하는 사람도 많다(행16:16~18).
- (7) 억울하게도, 결국 지옥으로 가게 된다(눅16:19~31).

6. 세상에서 사람을 통해 얻는 평안은 잠시 뿐이다.

- (1) 이것을 두고 세상 것으로 행복을 찾으려고 하지만, 이런 것들은 세상적인 것이다.
- (2) 육신적인 것이다.
- (3) 쾌락적인 것이다.
- (4) 더 큰 불행을 가져다준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주님이 끝까지 지켜주실 것이다.

결론

말씀의 내용을 잘 알아야 한다. 이게 우리의 정체성이다. 완전 복음을 이해하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의 행복은 다른 행복이다.

- (1) 이것은 절대적인 행복이다.
- (2) 세상이 알 수 없고 감당할 수 없는 다른 행복이다.
- (3) 하나님과 함께 하고 영적인 힘을 얻을 수 있는 행복이다. 이때 영적 상태, 마음의 상태가 달라진다. 도를 닦는다 해도 안 된다.
- (4) 생명 살리는 행복이다. 이것보다 행복한 게 없지 않다.
- (5) 이것은 믿음 안에서 주어지는 행복이다.
- (6) 그래서 이것은 예수 행복이다. 그리스도의 행복이다.
- (7)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용서받았다. 이 용서에 의한 행복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다.
- (8)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용서받을 수 있었다. 마음의 여유를 가지게 되었다.
- (9) 그러니까 우리는 참된 승리를 할 수 있다.
- (10) 우리의 행복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행복이다. 행복의 진정한 의미와 내용을 알아야 한다. 내가 행복하지 않고 내 문제에 대한 정리가 안 되었으면 어떻게 복음을 전하겠는가. 한 사람 한 사람, 한 팀이 루터처럼, 칼빈처럼 응답을 받도록, 그래서 우리 후대가 믿음 안에서, 복음 안에서 참 행복을 누리는 교회가 되도록 기도하자.